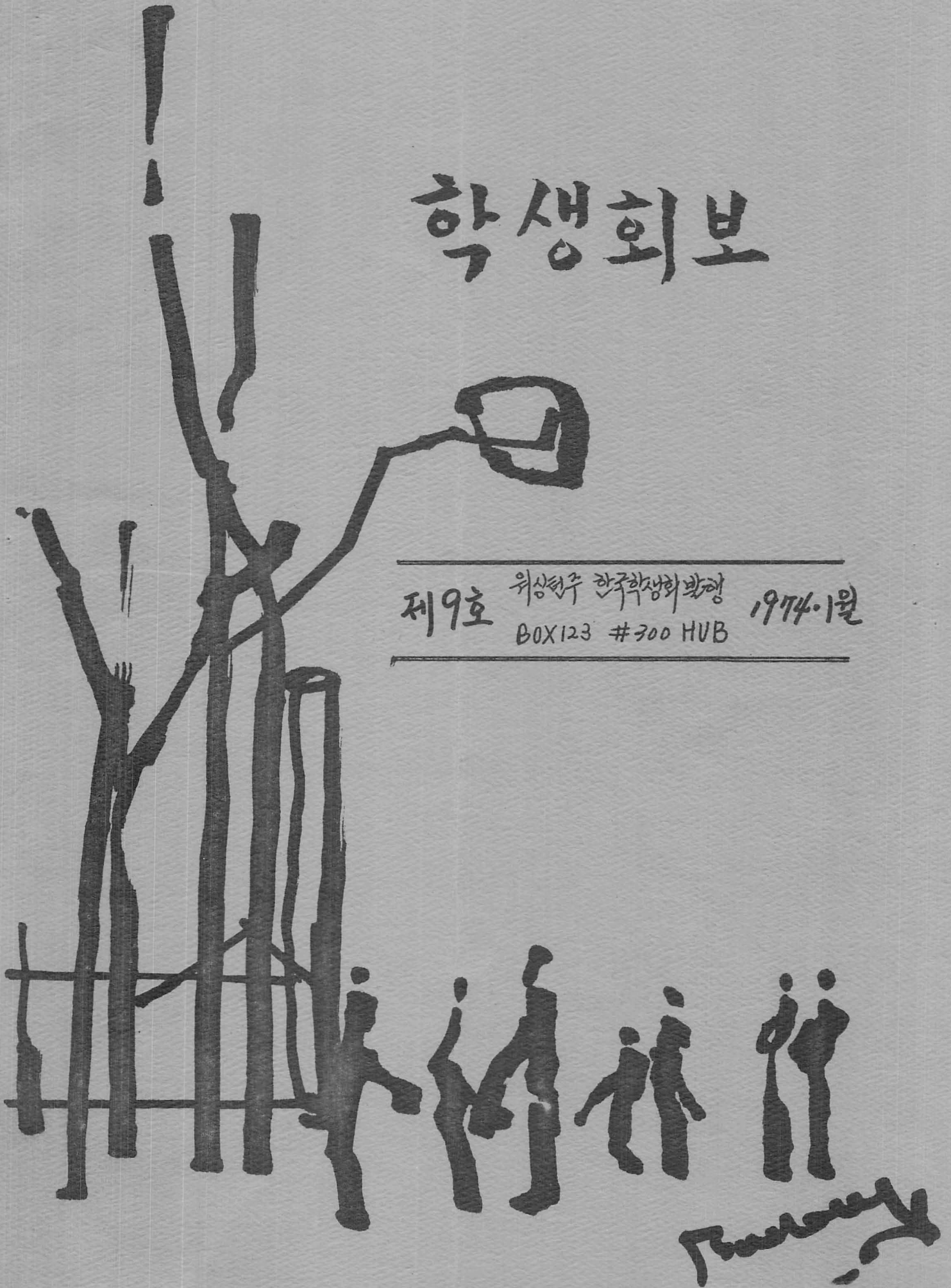


학생회보

제9호 위상희주 한주학생회보 1974.1월
BOX123 #300 HUB



위상희주

이달의

특필

최근 1.2년간 부쩍 늘어남 日本人관광객
 때문에 한국의 一流 백화점에서는 심지어
 日語로 안내 방송까지 한다는 소식을 듣고 새삼
 今昔之感을 느끼는 한류 사람이 아닐 것이다.

또한 노위 "여성관광" 문파를 둘러싸고 日本에서는 여러
 주부단체들의 항의성명과 眞相 조사단 파견 움직임이 있었고 한국
 에서는 女大生들의 산발적인 항의시위가 벌어졌다는 기사를 읽고
 가벌에 넘겨 버릴수 없는 착잡한 기분도 들었다.

물론 이러한 사태를 보고 사분히 感情的 차원에서 民族主體性
 을 옹호한 운위해 보자는 것은 아니다. 보다 근본적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빚어낸 政策의 방향과 또한 經濟에서 力점을 두고 있던 우리의 傳統의 文化와 美作업간의 큰 乖離과
 이렇기 국민속에서 조화와 和諧을 얻을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더욱이
 近代사와 統一이라는 民族的 카제를 앞에 두고 共産主義의
 도전과 日本의 팽창에 직면하여 있는 70년대의 상황속에서, 잘못
 하거나 共産主義와 新植民主義에의 굴복을 兩者扶一해야 할것이라는
 우려도 받는다. 이는 解放後의 격동기에서 민중속에 퍼져 있었던
 「女權에게 속지 말자, 美口 믿을수 없다, 日本 다시 일어선다」는 경계의
 시금석 豫感과 不安을 변상시킬수도 있다.

결국 한 民族의 에너지를 민족共同的 目的을 위해 奮斗하기
 위한 理想으로서 「한국 民族主義」 문제를 여기에 提議하는 까닭도
 바로 民族主義의 成敗가 論理的인 차원에서 우리의 장래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民族의 現在나 未來에 있어 온갖 시련과
 영광을 共有한다는 최소의 合意과 지도층과 민중간의 조성이 되고
 실증되지 않으면, "急變하는 국제정세"의 위협이 수백번 되되어
 적도 이에 대처하는 民族意志의 총화는 이루어질수 없고, 따라서
 推進力을 안지 못하는 한국 民族主義는 기대되는바 그 歷史的 使命을
 다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국민족주의

지난 1월 11일 학쟁회 주최로 유명덕씨
덕에서 「한국민족주의 문제」에 대한 좌담회를
가졌다. 本論壇은 이좌담회에 참가하신
유재건, 이우환, 김홍기, 이명재, 오근호, 김실동,
지용희, 서진영, 유명덕, 권영길, 최재원, 김철준,
김중기, 이양림 諸氏의 토론을 바탕으로 가
한 体系的인 叙述을 시도해 본 것이다.

1. 우리는 오늘 이시점에서 왜 한국민족 주의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하는가?

첫째로 우리가 민족주의를 새삼 논의하고
자하는근본이유는 오늘 우리가 처한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에 있다. 무슨 독트린에
의해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점진적 철수를
시작하였고 일본세력의 한반도 침투가 날로
활발해지고 있는 이시점에서 우리는 불완전
하나마 민족적 자아를 다시甦자는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수없다. 한·일간의
관계는 상호간의 협조주의로 보기에 이미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의존도
가 음방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日本帝國
主義 세력이 한반도에서 물러날때 보까
렸던 "20년후에 다시 보자는"는 그들의
의지는 한반도에서 다시 실현될려는찰나
에 놓여 있다. 우리의 위기상황은 조그만 물질적
이득을 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민족적
양심을 포기하거나 다비시키려는 일부

몰지각한 思潮에 의하여 더욱심화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 하고자
한다.

둘째로 우리는 해방이후 여태껏 잊어
왔던 한국민족주의 논의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다시 얘기하고자 한다.
한국민족주의에 대한 논의는 그 논의자에 따라
두가지로 나눌수있다. 첫째는 귀정자들에게
의한 민족주의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변동기에 잠깐 나타났다가는 없어지곤 하였다.
가령 5.16 초기 혁명주동자들이 민족주의를
부른것임이나 미국의 지지를 받은 이후에는
그들의 이러한 주장은 퇴조하기 시작하였다.
둘째는 사상계, 신동아에 자극고 했던 안테리
들의 민족주의 주장이다. 이것도 국내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그리 오래 지속되는 논의로 발전
되지 못했으나 그래도 위정자들 논의보다는
좀더 진지하게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논의는 한국민족주의를 자유민주주의와
同一視 내지는, 그틀우리 안에서 의 이름으로
밖에 취급하지 않은 제한성을 내포하고 있다

2. 한국민족주의에 대해 논의할 필요 가 없다는 주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첫째 이러한 의문이 나오는 이유는
미국 유학의 특권을 향유하고 있는 우리들은

大國의 국제주의적 또는 자유주의적 영향하에서 민족주의를 종단의적으로 받아들일수록 암암리에 그先腦 되었기 때문이거나 또는 민족주의의 논의를 가능한한 회피하려는 지배 계층에 의한 기형적인 분기 속에서 근시적 사고 방식에 쫓겨 우리를 둘러싼 어려운 문제를 민족적 차원에서 보거나 개인주의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습성에 쫓겨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습성에 쫓겨 있는 우리에게 민족주의의 논의가 생소하게 들리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둘째, 이러한 의문이 제기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민족주의가 독재를 위한 美名으로 이용될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후진 제국들의 많은 독재자들이 민족주의를 부르짖었고, 민족주의로 그들의 독재를 정당화했다. 그러나 독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민족주의를 부정해야 된다는 논리는 나뉘지 않는다. 더욱이 민족주의는 지배층이 그들의 지배를 계속하기 위한 단순한 편의책이 될수 없는 그자체의 생명력을 가진 논리인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위정자가 민족주의적 목표를 추구하고 그것이 전국민의 지지를 그에게 모으는 계기가 된 이후에는 이목문의 추구를 벗어나서도 그대로 정권을 유지하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다. 민족주의적 지도자로서 그의 카리스마를 발휘했던 인도네시아의

스카르노도 그가 천명한 목표추구에 실패했을때 실각의 운명을 피할수 없었지 않은가!

3. 민족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민족주의는 "민족적 자아의 확립을 위한 노력"이라고 볼수있다. 이러한 노력은 主權의 確立, 經濟的 自立, 민족문화의 창달이라는 과제로 구체화 된다. 오늘날의 국제정세는 개별국가의 주권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으나 자아가 확립된 개인이 여러사람과의 관계에서 그의 결정과 행동에 제약을 받으면서도 그자신의 운명에 대한 궁극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자아가 확립된 민족국가는 그 운명에 대한 궁극적 결정권을 갖게 마련이다. 경제적 자립과 민족문화의 창달은 각각 이러한 주권의 확립을 위한 물질적, 정신적 기반이다. 이러한 구체적 내용을 갖는 이념을 의식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그것은 自民族에 他民族에 처한 저항의식과 대항의식을 가리킨다. 自民族이 他民族의 압제와 착취로 인해 주권의 상실 경제적 예속 민족문화의 파괴 상태에 있을때는 他民族에 대한 저항의식이 민족주의의 기본의식으로 되고 이상의 세가지 모소를 자민족이 준비하고 있을 때에는 他民族과의 대항의식이 그 기본의식으로 된다. 형식적으로는 주권을 가지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후진되고 선진제국의 선전공세로 인해 민족문화가 위축상태에 있는 대부분의 후진제국의 민족주의는 그의식적 기반으로 양자

를 전부 혼합해서 갖게 된다. 민족주의의 의식이 저항의식과 대항의식이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他民族에 대한 배타의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민족적 자아의 확립이 他民族에 의해 방해되고 있을 때 한해 우리는 그 민족에 대해 배타의식을 갖게 된다.

4. 우리의 민족주의적 의식형성을 저해한 요인은 어디에 있는가?

첫째 우리의 지배층이 민족주의적 세력이 아니었다는데 있다. 李政權 시대를 예로 볼것 같으면, 이승만 박사 자신이 철저한 반원적 민족주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국내권력기반은 아이로니크하게도 친원파에 두고 있었다. 원제시대에 동족을 배반하고 동족의 추위에 서슴치 않았던 원제의 완장이 들어 민족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지 않고 그대로 이복사를 업고서 한민족을 다스렸다는 사실은 실로 수치라 아니할수없다.

둘째, 이와같은 기본적인 성격을 가진 지배층은 우리에게 특정외국에 대한 무조건한 우방의식과 적대의식을 구입시킴으로서 우리의 민족적 자아의식을 마비시켰다. 우리의 위정자는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남의 민족이 아닌 우리 민족에 가까운 정도의 친선의식을 갖도록 우리를 교화시켰다. 미국이 결코 한민족의 우리개념속에 들어올수 없는 남의 국가라는 사실이 오늘에 와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추축자요 억압자였던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 한민족 대부분이 아직도 혐오감과 의심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위정자는 우리에게 과거를 잊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공산제국에 대해서도 이와 정반대의 경우만큼 더 이상 논술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셋째, 우리의 민족주의적 의식형성을 저해하는 조하나의 근본이유는 남북분단에 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반만년간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부한의 동포를 적대시 하지 않을수없는 필연마에 빠지게 되었다 他民族에 아닌 自民族에 대한 적대의식의 존재는 민족주의의 논의 자체가 좀더 근본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도 된다. 불행히도 우리는 한민족의 이러한 비극적 상대가 어디까지나 미소의 장난의 결과라는 일면한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5. 한국 민족주의의 궁극적 목표와 그 실현 가능성은?

첫째, 한국 민족주의의 궁극적 목표는 남북을 통일한 민족국가의 수립이다. 이과제는

남북의 양체제가 상이한 이데올로기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자취히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과제의 해결에는 좀더 장기적인 전망과 초월적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한다. 남한의 자본주의와 북한의 공산주의를 조국한 정치, 경제적 이념의 창조 없이는 남북한 통합이 있을수 없고, 이러한 창조는 민족주의적 에너지의 동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결국 한국 민족주의의 과제의 실현은 민족주의적 에너지의 동원에서 시작한다는 순환논법으로 되돌아 왔지만, 더이상의 해결책을 우리는 아직 찾지 못했다.

둘째, 남한의 현체제가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을 세울때, 이와 같은 한국 민족주의의 실현 가능성은 거의 비판적이라는 데 토론자들은 그의견을 모았다.

*제한된 시간내에 어려운 문제를 토론한 만큼 우리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충분히 발표할수 없었다. 본논단이 미흡하게 느껴지는 원인으로 여기있음을 밝혀 둔과 동시에, 이것이 우리들의 앞으로 토론의 실마리가 된다면 이보다 더 경사스러운 일이 없겠다.

(文責: 이정복)

◇ 이소식 · 저소식 ◇

아리랑 파티 성료

1973년의 묵은과제 미련을 청산하고 의욕에 찬 새해를 만기위한 送年 파티가 구랍 29일 예년에 비해 훨씬성황을 이룬 가운데 끝났다. 이날 연말로 임기를 마친 한반섬 회장의 학생회에 대한 기독금 100만 전달식도 있었다.

최익환 형 博士 학위 취득

12월 최익환 형(比較文學)은 논문 발표를 마치고 待望(?)의 학생생활을 청산. 추하를 드린다

한국 War-Brige 문제 토의

가을 학기가 끝나는 12월 19일 오랫동안의 관심과 노력 끝에 미국군인과의 결혼을 통해 이곳에 이민온 한인교포의 상담과 지도를 맡게된 이기환, 김실동 형을 모시고 유익한 토의가 있었다. 연방정부기금으로 마련된 이계획을 위해 연말 정초에 관례없이 김형은 Director로 이형 research coordinator로 눈망중.

이기환, 이일성 형 환송회

있달아 정든 씨앗들을 떠나게 된 이기환 형(캔사스 행) 이일성 형(뉴욕 행)을 위해 3일 환송회를 가졌다. 더 큰 목적을 위해 떠나시게 되는 만큼 부디 큰뜻이 이루어 지기를...

Statira Biggs 장학금

자격: UofW에 등록한 한국, 중국 일본 유학생
 금액: 200 - 500불
 신청마감: 1974년 1월 25일
 접수처: International Service Office
 (phone: 543-0840)

言語政策と韓國의 民族意識

마이클 로빈슨 (한글명: 魯永仁)
(歷史學科 韓國近代史전공)

言語는 民族主義, 民族意識의 形成에 重要한 關係를 갖는다. 社會言語學者인 조슈아 피시먼 (Joshua Fishman: Language Problems in Developing Nations, 1968)은 言語의 維持, 強化 및 內容的 充實化는 民族主義的 一作의 必要를 主張하는 根本的 要素임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韓國의 경우 訓民正音의 創製 이래 言語政策의 發展은 곧 韓國의 文化 및 民族意識을 表現하는데 重要한 功績을 해왔다고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國家意識을 高揚시키기 위한 近代 韓國語 發展에 關連된 世變 國語運動은 韓國의 民族主義運動과 不可分의 關係에 있다. 國語를 갖고 싶어 했던 庶民의 願望 또한 訓民正音 創製를 둘러싸고 庶民과 李朝社會의 上層階級 (兩班) 사이에 展開되었던 論議 등은 곧 獨立한 民族意識의 覺醒과 國語의 必要성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19세기에 전개되었던 國語 復興 및 強化運動은 韓國의 漢字의 排反을 위한 社會 階層에 새로운 理想을 불어 일으킴으로써 韓國의 民族意識 形成에 重要한 役割을 擔當했던 것이다. 日本植民地治下에서의 韓國文學는 韓國語의 形式과 內容을 形成시켰고 韓國人의 主作性과 固有性을 크게 認識시켰다고 하겠다. 「한글 학회」의 活動은 國語를 保持하고 日本의 同化政策에 反抗하는 象徵的인 役割을 遂行하

였다. 또한 解放以後의 世變 言語政策은 韓國의 社會的 經濟的 近代化運動과 緊密한 關係를 가졌음을 證明할 수 있다.

모건데 1945년 까지의 國語運動은 韓國의 民族主義의 統一的 勢力을 형성시키는 功績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한반도에 두개의 相異한 政權이 樹立됨과 더불어 言語와 民族主義와의 關係에 多少의 變化가 發生했다. 다시 말하여 南北에 각기 異質的 政權이 樹立됨으로써 서로 다른 言語政策의 出現을 보게 되었다. 이는 또한 過去와는 달리 韓國의 民主주의 運動에 潛在的 分派勢力로 變換한 것이다. 言語가 國家意識 또는 民族意識을 形成시키기 위한 功績을 세키는데 커다란 功績을 하였다고 前提한다면, 南韓과 北韓 사이에 發展된 言語政策의 分派는 相異한 國家意識이 說明되어 가는 하나의 傾向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南北韓의 言語政策上 根本的 差異點은 北韓의 경우 漢字의 排反, 南韓의 경우 漢字의 계속 사용에 있다고 하겠다. 1949년 이후 北韓 政權은 漢字 專用化政策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北韓은 그들이 眞正히 信奉하는 政治理想에 따라 漢字를 廢絶教育을 가로막는 貴族階級의 宣傳물로서 「封建主義」의 殘存을 認定하고 이를 打破하기 위하여 漢字를 純化시키고, 新語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形象文學의 養成에 功績을 두어왔다. 北韓은 이런 言語政策을 中央權力의 강력한 推行에 實現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南韓政府는 한자례시를 新行하지 못했다.

「씨아틀 地域 한인사회」— 새會長團에 드리는 두가지提言

六·七年前만 해도 몇百을 세던 이곳 씨아틀 地域의 韓人社會가 이미 千餘家口를 헤아리는 커다란 Community로 변모하고 있다. 여기에 Tacoma 地域에 흐려져 있는 移民·國際結婚한 女 人들까지를 보태면 적어도 五千은 넘을것이 石卷實하다. 量的으로만 불어가고 있는것이 아니라, 内容的으로도 充實해서 學業을 마치고 이곳에 定着한 比較적 同質的인 Professional Group으로 부터 勞働者, 各種 Business 고용者, Sauna 業者, Go-Go Dancer, 식품업자, 政府기관 의 官員에 이르기까지 多樣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추세로 비추어 보건데 머지않아 人口가 万을 넘을것이 분명하다.

이 事實은 지금까지 거의 친북단체로서 役割해 왔던 「한인會」에 커다란 課題를 提起한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課題」라고 말하면, 어떤분들은 우리야 이곳에서 살려고 왔으니 美玉社會에 適應해서 살아가는 以外에 무슨 別다른 일이 있겠느냐. 그러나 「한인會」도 친북단체로서 분하지 않느냐고 하시겠고, 또 다른 分들은 한국사람이란 용어만 하면 싸움질하는 버릇이 있으니 아예 처음부터 무슨 「단체」나 「課題」같은것은 잊어버리는것이 上策이다 라고 하실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곳에 있는 다른 人種團體 의 경우를 보거나, 또 이 美國이란 社會의 思维方式 (때들어 대면 들어주고 가만히 있으면 무시해 버리는 態度) 이나 그것을 바탕으로 한 社會形態로 보아서도, 보다 組織的으로 統攝된 體制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멀리 떨어진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여기에서 살고 계신 여러 構成員의 利益을 위해서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따지고 보면 이 美國社會란 것도 이러한 各 構成部分이 스스로의 利益을 自覺的으로 要求하고 代禱하는 過程에서 發展되어 왔고 또 지금도 發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한개의 構成 社會가 된 韓人 社會가 그리 같이 自體의 利益을 찾고

表示하고 代辯해 주는 것을 차리리 要求 하고 있다고 볼수도 있다.

이러한 출발위에서 말씀드리자면, 첫째의 課題는 한인사회를 보다 넓게 組織的으로 統合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組織的 統合이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一致團結 하자는 것이 아니다. 서너사람 모인 곳에도 서로 다른 意見이 있기 마련이니 이미 몇천이나 되는 한인사회에 一致團結이란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른 意見도 많고, 또 싸움애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정말 싸움이 있는 것도 事實인 것 같다. 이렇게 된 관공이 서삼스럽게 「단군신화」 얘기를 해 보았자 소용없다. 그러나 組織的 統合이란 당장 싸움을 그치고 한데 뭉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싸움과 異見을 위해서 共通의 場所를 마련 하자는 것이다. 싸우더라도 모여서 싸우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意見이 있으면 모여서 서로 알리고, 알아서 解決의 길을 찾아 보자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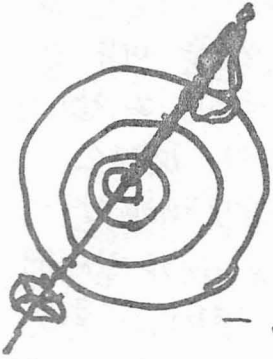
싸우며 아예 만나지도 말자는 論議의 배경에는 꼭 意見이 합쳐야 모일 가치가 있는 모임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完全 合致를 너무 理想化한 우리의 傳統的인 생각이 흐르고 있다고 믿는다. 위 아래가 분명했던 옛날 같으면 꼭대기에 있는 사람의 意見으로 合致가 可能했는지 몰라도, 職業化, 男女平等은 말할것도 없이 "兒童의 權利"도 찾는 지금에 있어서 合致란 아예

그런 생각이 되고 말았다. 逆說的으로 말해서 한국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잘 싸우는 듯이 보이게 되는 것은 그와 같이 合致를 當然한 것으로 보고 異見이나 反對를 너무 좋지 않게만 보아온 우리의 마음에 그 한가지 理想이 있다고 볼수 있다. 이런 反對로 異見과 싸움을 當然하게 생각해야 할 時期가 아닌가 싶다. 싸움애기가 길어졌는데 첫째의 課題는 우선 相反되는 意見들을 모으는 것이다. 그이외에도 사느라고 바빠서, 나타내기를 꺼려서 숨어 있는 意見들도 많다. 이것을 어떻게 모아 보느냐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새 會長團의 指導力이 달린 문제라 보아진다.

둘째의 課題는 「한인들의 組織과 機能」을 친목단체 이상의 것으로 向上 시키는 것이다. 친목을 경시해서가 아니다. 앞으로 나타날, 이미 나타나고 있는 한인사회의 문제를 政府나 관계 기관이 흐라 갖게 代辯할 組織的, 機能的 態勢가 必要하다는 것이다. - 예를 들면, 今年들이 Olympia 洲 合會에서 論議되는 Sauna Bill 같은 것도 實은 몇백명의 한국인의 生活가 걸려 있는 事件인데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모양이다.

또 各 政府기관 要件에 많은 Minority Ethnic group들이 各 族을 代表해서 Advisory Function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보다 積極的인 參與를 해야 할 段階에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 몇군데 親의인 選任과 親戚關係를 통해서 한인이 참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該 代表 派遣도 보다 公試化 해서 보다 긴밀한 연락下에서 組織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면 싶다.

요약하자면, 數가 이미 몇천에 이르렀는데 「한인들」도 이런 社會的, 政治的 壓力團體로서 登場할 必要가 생겼다고 본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선 넓은 自体 統合과 組織 整備가 마련되어야 할 時期가 아닌가 느껴지는 것이다.



- SKIING -



우 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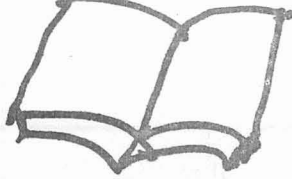
요즘 수요일이면 꼭 밤잠을 설치고 하는 버릇이 생겼다. 아무들 들어 다음날의 SKIING 때문이라면 믿어주질 않을 줄 안다. 아무튼 자는듯 마는듯 6:30 기다렸다는듯 이불을 차고 일어나면 훗는 식사준비 나는 잠이 준비를 하고 나서 7:30 나는듯 차이 물을 끓인다. 하루의 알티로 향하는 수많은 차들과 방향을 달리하면서 비오는 시가를 벗어나 CASCADE를 향해 동쪽으로 pedal을 밟는다. 9:00 경 slope이 많아 서둘러 SKI를 신고는 얼어붙은 chain이 몸을 삼키면 고도 고도 만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다. 地面이나 雪面에서 30ft 가량의 허공에 매달려 약 10분간 눈덮힌 산악의 웅장하고도 섬세한 아름다움을 즐긴다. 멀리 점점히 눈이 고선 흰 산봉우리들로 구부러진 지평선 아래 개어울같이 꼬불꼬불한 산길들을 아래로 바라보면서 맑은 공기를 한껏 마셔본다. 정상에 내려 장비를 정비하고는 무릎까지 쌓인 하얀눈을 가르면서 몸은 2m 가량의 212의 SKI 위에서 optimum 균형을 위해 섬세한 움직임을 즐기게 된다. 라시름 나는 나를 잊고 slope 위엔 눈이 물려 빌듯 빌듯 하는

SKI와 저밀 험한 地形이 처음 다루는 Dynamic balance의 희열만이 존재하게 된다. 초보자들에게는 가파른 slope speed에 대한 두려움과 흥분에 대한 한 하루가 되고 좀더 진보한 skiers들에게는 여러가지 Technique을 시도하는 끝없는 도전의 하루가 된다.

SKIING은 위험이 따르는 운동이긴 하나 겨울철 여객기 어려운 Road Condition으로 인한 운전의 어려움과, 가파른 slope speed (기록: 116 mph Italy). 그리고 무엇보다도 Twisting force에 의한 부상을 막을 수가 없다. 한편 이렇게 위험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SKIING에의 매력을 더해주는지도 모른다. 시계부랄 마양 집, 책, 도서실 그리고 safe way를 오가는 보트의 나른함속에서 하루라도 뛰쳐나올수 있는것만도 바람직한데, 그하루를 어렵듯한 위험의 가늠속에서 모르고 나서 느끼는 안도감과 쾌감이 또한 SKIING의 진이인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성도 해를 거듭함에 따라 사라져 가고있다 특히 Safety와 가장 직접적 관계가 있는 Bending (SKI와 BOOT를 이어주는)은 의학적 기계학적으로 정속의 발전을 보이고있다 이러한 Safety가 보장되자 요즘 SKIING은 RISK SPORT의 영역을 벗어나 Recreational Sport로 변화는 경향을 보인다

SKIING은 또한 "돈 많이 드는" 운동을 즐길수 없다. 위험이 따르고 장마가 특수한 곳이라 할수 있겠다. 허나 2.3시간 Sale의 운전에서 기라 질수있는 정열이 있거나 또는 부기려한 생활에서의 (p.1-기 계속)

<독서후감>



The Song of Ariran by
 Wym Wales and Kim San
 (1941年初版, 1972年再版, The
 Rampart Press) pb. 346 pp.

1937년 이름 Wales (본명 Mrs. Helen Foster Snow)는 취미로 中國 遊學이
 많고 있었다. 하루는 그곳 「노인」도서관
 에서 우연히 英文서적 冊과 冊을
 뒤졌더니 이름 해가 유난히 주의를 끌었다.
 뜻하지 않은 책을 그것도 아주 여러 분야
 에 걸쳐 펼쳐갔던 것이다. 사람이 영어로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 감잡하던 중이었으므로
 큰 사람을 시켜 한번 만나고 싶다는 사연을
 전했다. 며칠후 그의 숙소를 찾아온 장인의
 三代 청년이 있었다. 그 이책의 주인공
 김산이다.

외국의 압제 아래 신음하는 작은 나라의
 志士들은 흔히 세계여론에 호소할 기회를
 찾는 법이다. 김산이 벼룩 美女記者에게
 말문을 연 때에는 그러한 동기도 있었다.
 한편 Wales는 김산이해서 현대 極東史의
 5卷들이 속에서 지은 비범한 혁명가를
 발견하였다. 마침내 김산이 痛恨히 구출하는
 半보의 기록을 Wales가 받아서 책으로
 엮은 것이 이 「아리랑의 노래」이다. 김산은
 혁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책의 출판을 2년
 동안 보류해 둘것과 또 「김산」이라는 가명
 안으로 알려지기를 청했다. 20여년이 지난

1961년에야 비로소 Wales는 김산의
 美名을 「장지락」으로 밝혔다. 그후
 서대숙 教授가 日本 경찰기록에서 이 이름
 찾아내었는데 民族主義者로 부인이 찍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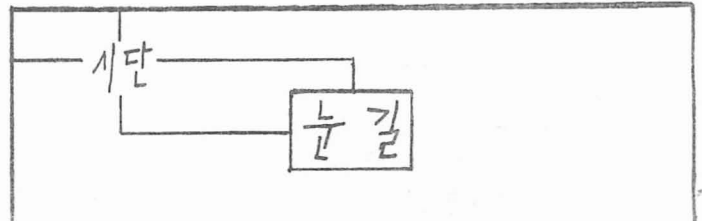
이야기는 김산의 유년시절에서 시작하여
 그가 나이린 소년의 몸으로 가담하였던
 三·一運動 前後의 서움을 거쳐 멀리
 中國 대륙으로 뻗는다. 만주, 상해, 광둥,
 북경, 그리고 연안 ... 등하에도 김산은
 二十年代와 三十年代 중국혁명의 가장
 기열한 관주안을 찾아서 뛰어다닌다. 上海
 시기에는 무정부주의적 테러리스트 들과도
 사귀었고 또 春園과 島산의 감화도
 입은듯하다. 그가 넘은 허다한 보편의
 苦도 불합거니와 그보다도 더 감명받은
 것은 그의 솔직한 인물이다.

자기 자신이나 신변에 벌어지는 일을 보는
 눈이 전혀 죽어있지가 않다. 무서운 투사로
 자라나면서도 결코 그의 감정이 후회해지거나
 인간성이 메마르지 않는 이유는 이 늙은한
 정직성에 있는것 같다. 二次大戰 前後
 그가 위험한 사명을 띠고 東北지방으로
 향할때 작전에 이야기는 끝난다.

이책을 읽으면서 나는 malraux
 의 「인간조건」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인간조건」은 1929년 여름의 上海에
 寫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김산이
 廣東 봉기사건에 앞장을 서고 있을때다.
 두책이 다 한번 읽기 시작 하면

중도에서 돌을 수 없는 박력이 있는
 점도 비슷한 것 같다. 그러나 「인간」은
 허구로 「아리랑의 노래」는 실화
 다. Malraux도 중국 혁명을 배경
 으로 썼던 것은 사실은 현대 서양
 정신에 비포된 고관과 절망을 다루고
 있고 김산은 현대 극동사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한 민족의 살길을 찾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Malraux의 인물들은
 行動, 특히 처지 행위 속에서 어떤
 신의를 추구하지만 김산은 무정류의적
 처지들을 곧 벗어난다.

이러한 책을 읽고 나면 우리의 現代史
 에 대한 역겨운 마음이 덜어진다.
 민족에 대한 民族 항쟁 속에서 김산이
 썼던 구체적인 「이데올로기」가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용감하게 살아간
 한류인의 한 像으로서 그를 보게 된다.
 고관의 역사가 반드시 치욕스러운 역사,
 웅장한 역사는 밟은 밟다는 생각도
 없다. 만일 우리가 그 역사를 응시
 하며 치욕스럽게 살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이와 같은 긍지를 우리에게
 안겨줄 수 있는 한 절리한 영웅에
 대한 고아들이 가슴속에서 추구하는
 것이다. (I.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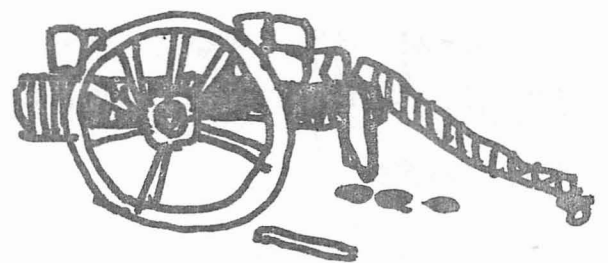
아편을 사러 밤길을 걷는다
 진눈깨비 치는 백리 산길.

낮이면 주막 뒷방에 숨어 잠을 자다
 지치면 아낙을 불러 육백을 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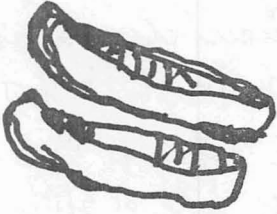
억울하고 어리석게 죽은
 빛 바랜 주인의 사진 아래서
 음탕한 농짓거리로 아낙을 웃기면
 바람은 뒷산 나뭇가지에 와 엉겨
 굵어 죽은 소년들의 원커처럼 우는데
 이제 남은 것은 힘없는 두 주먹뿐

수제비죽 한 사발로 배를 채울 때
 아낙은 신세 타령을 늘어 놓고
 우리는
 미친놈처럼 자꾸 웃음이 나온다.

신경림의 글에서



학생부인有感 ⑧



얼마 안 있으면 결혼한지 5년이 되니 나도 한번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느껴보게 된다. "북구에서 가장 큰 전나무를 뽑아 활화산이 불을 부쳐 캄캄한 말하늘에 '아고네스여,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고 쓰겠다면 시를 읽고 내 남편이 항상 나에게 그런 감정을 가져줄 줄 알았던 신혼초. 그것이 얼마나 우둔한 바랄이었는지... 이제는 남편과 아내는 한사람은 아니니까 그 차이를 조금은 인정해 주어야겠라고 마음먹게 되었으니 그때와 지금이 어제와 오늘 같은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많이 변화했는지 모를 일이다.

남편이 학생이기 때문에 꼭 교생이라고야 할수없겠지만 유독 어려운 처지일수도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중에도 여러 잊혀지지 않는일은 첫애를 낳은후에 남편이나 내가 익숙치못해 찢찢하여 애쓰던 일이다. 거기에서 중간시험으로 더욱 바빠 남편은 아침이면 시수도 할사이 없이 우유한잔과 도나산한개를 아침이라고 산보 머리카락에 뉘두고 후원으로 뛰어 나가고 나면 남편이 돌아올때까지 골짜기처럼 기라리던일, 남편도 뱃머는 미역국이 열심히 워터 보지만 그것도 잠시 일본 그러니 그렇기도 열아가 보고싶고 공연히 서럽기도 했던것은 내 생전 처음이었던것 같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도 안되어 밤을 새워가며 그골라운 자정에 오자 투성이의 타이프를 치연킨, 발견해서 돈주고 친다는 일은 상상도 못해보았으니 그렇기도 어려웠던가. 그때의 고애기가 커서 비설이 되고 또하나 꼬마가 생겨난동안 그 남편께서는 아직도 학생이다. 그동안 공부만 했으면 좋으련만 이일 저일로 귀중한 시간을 잃어다보니 이제 내가 이런글을 쓰게되지 않았는가 항상 마음에는 공부를 빨리끝내도록 도와야겠라고 다짐하곤 하지만 그것이 실현되어 차이는 없는것 같다. 와글이랑것이 일주일에만 한 번 장보러가는것일지라도 남편이 공부하노라 그렇게 바쁘게 지낼때는 무언가 가슴 뿌듯하게 충족감이 서려진다. 한번더 온가족이 마음과 힘을 합하여 도출직접이니 제발 귀중한 시간의 낭비없이 지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바랄뿐이다. 본인과 나와 아이들을 위해서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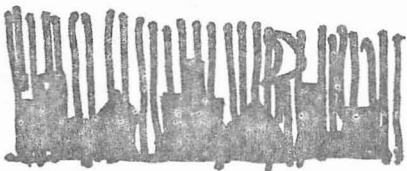
(지 용희형의 부인)

(10P 에서 계속)

도피를 절박하게 느낀다면 모든일이 그렇듯이 이문세 또한 송 101의 가치관에 달린듯 싶다. 비극유학 첫학기 성적이 만족하지 못한탓에 학업에 바람편단 식으로 시작된것이 어느덧 5년을 접어들면서, 수업은 마다하고 무료일이면 slope 를 찾는 정렬 그속엔 한두 page 를 설명하기에 의한非슬론 가 숨겨져 있는가 한다.

플로르 Seattle 근처 어느 SKI 장에서든 \$7이면 장비일체 (옷은제외)를 Rent 하여 하루를 즐길수있으니 특히 SKIING 에 흥미있는분은 비싼투자를 하기전에 또는 하루의 오락으로 꼭 한번 시도해 볼것을 권하고 싶다.

(화학공학과)



Energy Crisis 와 Ceramic Engineering

오염공학과 모근호

Arab 국가들의 crude oil 의 embargo 와 지난 겨울 한여름의 부족으로 인한 Northwest 지방의 전기량의 부족이 우연히도 일치하여 세칭 "Energy Crisis" 에 대해 우리는 주목하고 있는 것 같다.

本報 5호에는 이영재 박사께서 "에너지의 위기" 라는 제목으로 Energy Crisis 전반에 걸쳐 좋은 글을 써 주셨고 취자신도 3호의 "전공현제"란에 "Ceramic Engineering" 에 대하여 쓰바 왔다.

이번에는 한 오염공학도로서 Ceramic Engineering 과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Energy Crisis 와의 상관 관계를 얘기 하려 한다.

본보 3호에서 얘기했듯이 오염공학은 우리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하겠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그릇이라던가 그리고 가차하고 있는 집이나 건물이 전부 Ceramic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근래에 우리 식탁에 자주 오는 plastic 그릇은 값이 싸고 깨지지 않아서 실용면에 있어서 간편하지만 이것은 Crude Oil 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Energy Crisis 면에서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지금 Corning glass Co. 에서 intensive 하게 연구하고 있는 점에 의하면 glass 제품으로 plastic 과 같이 실용적인 것이 곧 상품화 되리라

있는 것 같다. 건물의 방음용으로 인조습 제품이 많이 써 왔지만 이것은 화재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널리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반가죽에 insulator 로써 좋은 효과를 주기 때문이다. 근래에 들어서 foam glass 나 fiber glass 가 상품화되면서는 보통, 방음의 insulator 중 좋은 Ceramic 제품들이 사용되어 지는 것 같다. 아직은 물론 이 두 제품은 학문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좀더 많은 실험이 되면 우리가 정에서 쓰고 있는 전기나 gasoline 양을 상당히 줄일 가능성이 보인다.

또 하나 좋은 전망은 nylon 나 acryl 같은 Synthetic 옷감이 fiber glass 로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물론 Crude oil 로 만들어 낼 수 있는 product 가 원료가 무한정한 모양체로 대체될 때 Crude oil 의 소비를 막음으로써 현재의 Energy Crisis 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일마전 American Ceramic Society Journal 에 보면 fossil crude oil 을 refine 하는데 기술적으로 많이 힘이 든 일이 있었는데 그 원유를 refine 할 때 catalyzer 로써 ceramic body 를 우연히 넣었더니 그 yield 에 있어서 50% 이상이 증가했다는 paper 를 보았다.

우리가 지금 절대량으로써 부족한 것이 원유임에는 사실이지만 그 원유에서 유용한 경우, 희박한 원유를 refine 하는데 있어서 그 yield 가 조금이라도 사실은 획기적인 사실이라 할 수 있겠다.

또 일마전 Physics Journal 을 보면 지금 바하이 발전사라고 있는 reactors 에 ① light water reactors, ② Breeder reactors, ③ Fusion reactors 를 들 수 있겠다. 이제까지 원자력 발전의

Mechanism 은 지면 제약상 생략하나 이를
원자로 발전에 Ceramic fuel 이 갖이하고
있는 중요성은 대체하다 하였다.

현재 약 38 개의 가동 중인 있는 (외국
전체) 원자로 는 거의가 light-water
reactor 이고 Breeder reactor 는 이론적
으로는 성립된지 오래고 실험적으로 확실성을
보이고 있는 단계에 있다. 특히 이 두 종류의
원자로 에서 사용하고 있는 Uranium-235
와 Uranium-238 그리고 그 산물인
plutonium-239 에 Ceramic body
를 배합 함으로써 모든 여러가지 감점을 증수시켰
다. 그리고 fusion reactor 는 사기 2000
후 후에나 실험 단계에 들것으로 보다.

원자력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Energy Crisis
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 원자력 사용에
Ceramic body 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였다. (우리 Wa. 버 에는 현재 원자력
발전소가 하나 가동중이고, 하나가 건설중
이며, 2 개가 계획중이다).

또는 4月末 Chicago 에서 열린 미국
화학학회 에서의 중요한 Symposium 중
의 하나가 Turbin material 이었다.

종래까지 사용하곤 했던 금속 gas turbin
을 Ceramic body 로 교체 하였더니 그
효율이 좋은 gas 소실이 적어졌다. 이
Symposium 에서 는 turbin 이 사용할
새로운 형태의 Characterization 에 관한
것이 gas 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목을 끌고 있다.

저 자신이 Bethlehem 강철회사에
근무할 때 이이다. 하루는 plant 의 Blast
Furnace 에 이상이 있자 해서 Research
Center 에서 몇몇이 plant 에 간일이었다.

Lehigh 강철회사를 (Lehigh 강은 Bethlehem,
Penn. 버 에 있음) 약 20 mile 에 달하는
plant 에는 기차가 다니는 곳으로 갔었다.

지금 기억으로는 직경이 약 50 yds. 나 되는
큰 괴물 (Blast Furnace) 이 이상이 있었
다. 그 속에 녹아 있는 쇳물을 다 쏟아 다른
곳에 옮긴후 (약 밤낮 4일 걸림) 조사에
착수했다. 알고보니 그 furnace 를
coating 하고 있는 내화벽돌 (약 3백만개)
에 이상이 있어서 그것을 전부 갈아서 새것
으로 바꿔 끼우는 것으로 약속이 되었다.

내화벽돌이 많이는 강철이며 알루미늄은 제련
할수가 없다. Pittsburgh 의 한 내화
벽돌 공장 에서 근무하는 친구한테서 모퉁이를
보던 자게네를 5개 plant 중 2개가
1A 末 까지 Energy Crisis 인하여
문을 닫는다고 한다. 내화벽돌과 강철
은 생각하면 또 금속과 우리 일상 생활
의 관련성 (자동차, 건물, 교량, 심지어는
조리 까지) 을 생각하면 저 자신은 생각
하곤 느꼈었다.

말이거늘 NASA 에서 쓴 돈은 천문학자
인사자에 달한다. 과학에 많은 돈을 들여 말에까지
는 항무지 만을 받고 오고, 그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 다른 field 에서 Science 와 technology
에 허한 비난이 왔었고, research fund
마저 많이 cut down 되었다. 물론 인류가
직면한 Energy Crisis 는 Science 와
technology 만이 해결 할 수 있지만
오늘날에는 정치적인 문제점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우선 이 Crisis 가 해결되어야 할 것
으로 생각이 된다.

전공순례 ⑧

藥學

권명권



藥學의 史는 人類의 史와 더불어 始作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人間이 생긴 순간부터 약의 存在는 거의 필연적이었으며 이름도 모르는 풀이나 새가 藥으로 사용되었던 原始的인 性能의 藥物로 부터 최근 工場에서 大量으로 쏟아져 나오 있는 수많은 藥物까지 그 性能도 다양하다. 또한 業主가 藥業(藥業)의 行便를 獨佔 하였던 先史時代로 부터 최근 獨立된 職業인으로서의 藥師로서 또는 더 나아가서 綜合病院內에서 의사, 간호원과 함께 진료팀의 一員으로서 까지 약사의 역할 및 社會的地位도 많이 변천되어왔다. 또 최근 有機合成의 發達로 인한 合成 治療劑의 등장은 지난 일세기 동안 거의 모든 分野의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데 成功하였고 藥理學(pharmacology)의 發展과 함께 藥業 그 自体도 現代的인 體제의 學問으로 이끌어 올라는데 至大한 공헌을 하였다.

그러면 이제 약학내의 여러 분야와 최근에 學問的인 조류를 동시에 略述 할으로서 全般的인 약학에 대한 소개를 대신 하려한다. 그러나 다른 모든 分野가 그렇듯이 우리 약학도 최근 너무 전문화

내지는 微細化 하는 경향이 있어 플라처럼 藥學에 대한 學問的인 年령이 미천한 사람으로는 과연 鳥瞰的인 說明이 될수 있을지 의문이나 그동안 보고들은 뜻까지 뜻을 기초로 얘기를 進行 시키려 한다.

藥學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가지로 大別 할수 있을것 같다. 1) 약제학 2) 약화학 3) 생약학 4) 병원약학. 此外 一部大學에서는 藥理學도 獨立된 學科로 취급하고 있으나 一般的인 경향이 그렇지 않은것 같아 여기서는 소개를 생략 하기도 한다.

첫째 약제학(pharmaceutics)은 약학중에서 가장 전통이 오래고 또한 약사가 되기 위한 훈련과정중 가장 中心的인 分野이다. 이는 한마디로 얘기 해서 약물의 조제, 복합 또는 투여 方法 등을 對象으로 하는 학문이다. 이종 수년전 대두하기 시작한 Biopharmaceutics 계통은 약물의 体内 투여 후 生成되는 物理的變化 則 胃에서의 흡수율, 体内 조직 침투율, 作用 持續 時間, 배설량 등을 기초로 해서 약물의 配合 및 투여를 合理的으로 하는것을 目標로 하는 최근 가장 크게 脚光을 받고 있는 分野中의 하나이다.

둘째, 藥化學(pharmaceutical chemistry)은 약물의 化學的 合成方法, Drug-Receptor relationship (약물이

그 藥效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細胞內에 그 結合된 藥物과 化學的으로 結合할수있는 Receptor(수체)가 存在해야 한다고 가정함) 및 藥物의 体内代謝(化學的變化) 등을 對象으로 하고 있다.

셋째. 生理學(pharmacognosy)은 藥用植物 및 動物이 그 主要對象이 된다. 간단히 얘기해서 인삼, 두충을 연상하면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제일 이해가 빠르리라 생각된다 이 分野도 최근에는 우리의 關心的인 漢藥學的 生藥學的 범주를 벗어나 그 對象도 微生物까지 포함시켜 그 領域을 넓히는 同時에 藥용수분, 동물 중에서도 그 有效成分만을 抽出하고 合成하는데 注力하고 있다.

넷째. 병원약학(Hospital pharmacy)에서는 종합병원 내에서의 Drug Information Center로 의사에 대해 약에 대한 전문적인 知識을 供給하는 것을 目標로 하고 있다.

이상 미흡한대로 몇가지 大略的인 說明을 두서없이 기술하였다. 끝으로 이 機會에 作年未 우리나라에서 잇다라 發生하였던 藥禍事故를 想起해볼때 우리나라 약사의 一員으로서 슬프고 부끄럽기 이룬데 있다. 책임의 具體적인 소재야 어디에 있든간에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보건 의 최일선 의 義務를

담당하고 있는 藥事行政의 改善(약국의 난립, 약사의 과잉공급 등) 없이는 우리주위에 언제나 常存하는 奇蹟으로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關心을 表明해야 할 眞切 切感 하는 바이다.

원고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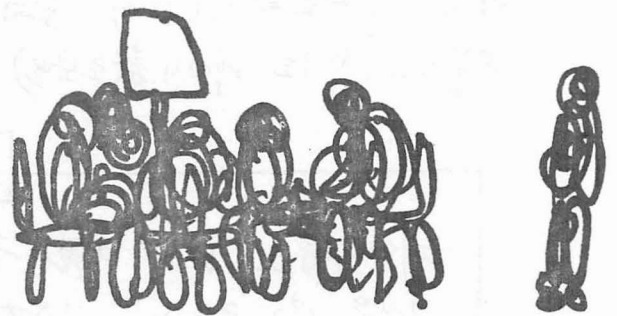
마감: 매달 5일

종류: 수필, 논문, 여행기, 독서소감, 광고사항 등

우송주소: KOREAN STUDENT ASSOC.
BOX 123 #300
HUB. U.W.

연락처: 543-3964
632-3567
633-5236

* 한인교포여러분의 투고도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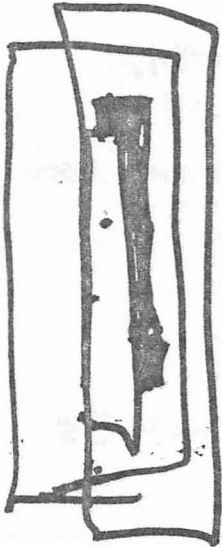
◇ 새잡 · 새잡학 ◇

이병원형 543-7306
 김도훈형 ME2-5323
 전봉홍형 LA3-3143
 성각우(전명선)형 632-7090
 학생회 연락사항 { 632-3964
 633-5236
 633-3792

--- 새학원 소개 ---

장주환형 : 지방학기부처 microbiology
 특 전공, 공부 및 무리가족 보급
 을 위해 명화약중. 문의사항은
 632-4439로.
 성민경형 : 이만학기부처 법학공부하시러.
 이수길형 : 공 정제학과에 정시응유예정.

◀ (원) (잡) (후) (기) ▶



▲ 이잡에는 민족호호 특집으로 우영덕형, 다음날에는 박진홍형잡을 전전하며 보통경우보다 최소한 그배의 편제를 기친 설이다. 두문에 심심한 감사를 포함해서, 민제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는지의 여음이 대해서는 여러분의 평가를 구할뿐이다.

▲ 그동안 우리들의 작은 노력에 대하여 지성래씨 (20분) 와 의평을 위하여 독지가 (40분)께서 고마운 도움을 주신것은 한편으로는 따뜻한 격려가 되지만, 다른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 유해정형의 분장으로 '컷' 등 사체로운 편집이 고심하던차, 이번호를 위해 백광호 하백(?) 이 동지와 여러가지 컷을 제공해주셔서 어느때보다 풍부하고 (적어도 페이지 수로보면) 다양한 편집이 된것을 감사드린다.

부활 말씀

제번하옵고, U.W. 지원이 끊겨 회보의 프란트와 우승비에 관심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도움에 같이 감사드리고며 한단계 앞으로의 재정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실곳 : Jae Won Choe, Korean Student Asso.
 L318 Hansce Hall Univ. of Washington



Korean Student Association
c/o FOREIGN STUDENT OFFICE, U.W.
SEATTLE, WA. 98195

MISS

Dr. & Mrs. James Hahn
4232 N.E. 17th St.
Renton, Wa. 98055

